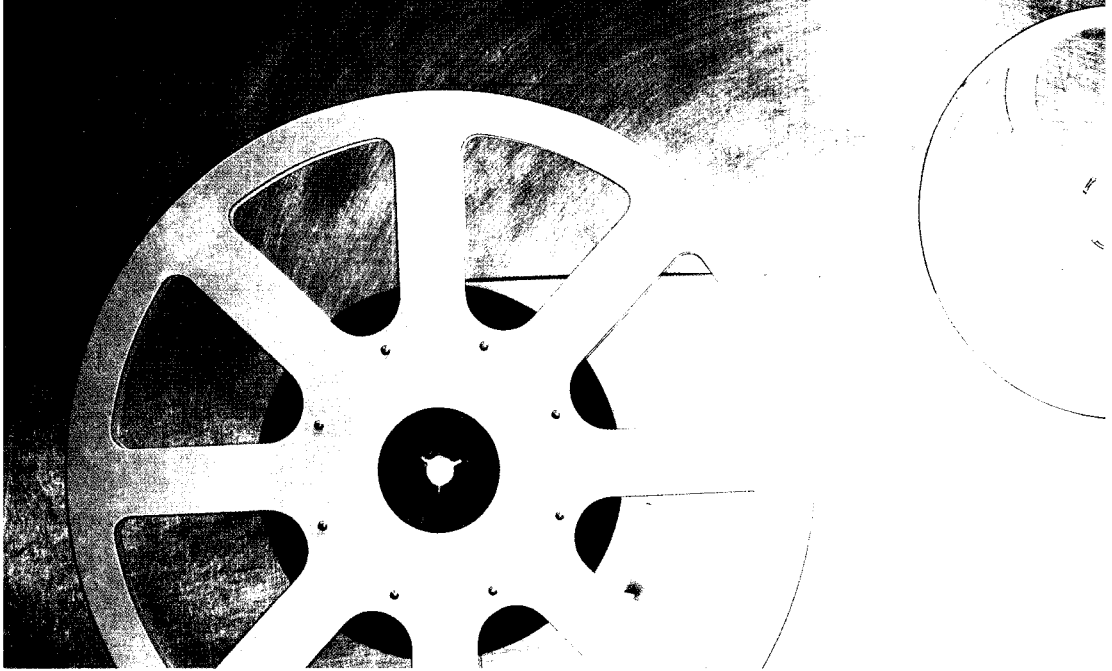


톱스타들이 앞장섰던 결핵퇴치 캠페인

한국전쟁이 끝난 후 나라가 채 안정을 찾기도 전, '결핵'은 또 한 번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질병이었다. 마땅한 치료약도 없었던 시절이니, 전염병인 결핵을 앓는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었던 시절. 결핵이 어떤 병인지 제대로 알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는데, 당시 극장에서 상영되던 대한뉴스에서의 결핵 캠페인 상영은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었다. 더군다나 당대의 톱스타들이 출연해 결핵에 대해 설명해주니 어떤 내용인들 귀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지금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여배우들의 옛된 모습과 당시의 결핵 홍보 캠페인을 빛바랜 필름 속에서 찾아냈다.

글_ 박연숙(본지기자)



연기자 선우용녀는 1969년 결핵 예방 캠페인 광고를 찍은 것이 계기가 되어 37년만에 또다시 협회와 의기투합, 2006년부터 대한결핵협회 홍보 대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후 매년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와 대통령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 행사마다 결핵협회의 얼굴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선우용녀 씨는 우리나라 대표 민명방송이었던 TBC 텔런트 1기로 방송에 입문, 연기자로서 탄탄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 당시 대한결핵협회의 홍보 캠페인을 짚게 되었는데, 최근 한 방송사에서 당시 화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면서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얼짱' 칭호를 얻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런데 결핵협회의 과거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면 당대 톱스타들이 캠페인 광고, 포스터 등에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1960년 12월에는 영화배우 최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삼시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캠페인을 촬영했다. 최은희 씨는 우리나라 영화계의 큰별이자 2006년 작고한 거장 신상옥 감독의 아내이기도 하다. 당시 최은희 씨는 남편인 신상옥 감독과 함께 <지옥화>(58), <동심초>(59), <상록수>(61),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61), <성춘향>(61) 등을 찍으며 명실상부한 당대 톱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통계상에 나타난 우리나라 결핵환자는 80만 명, 정부와 대한결핵협회는 이 홍보캠페인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제도입과 무료 결핵의료기관, 엑스레이이동검진차 등을 마련하여 결핵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 (관련영상 : 대한뉴스 제 291호)

최은희 씨에 이어 1961년 12월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당대 최고의 인기배우였던 엄앵란이 결핵 홍보캠페인 광고에 등장한다. 1961년도 선을 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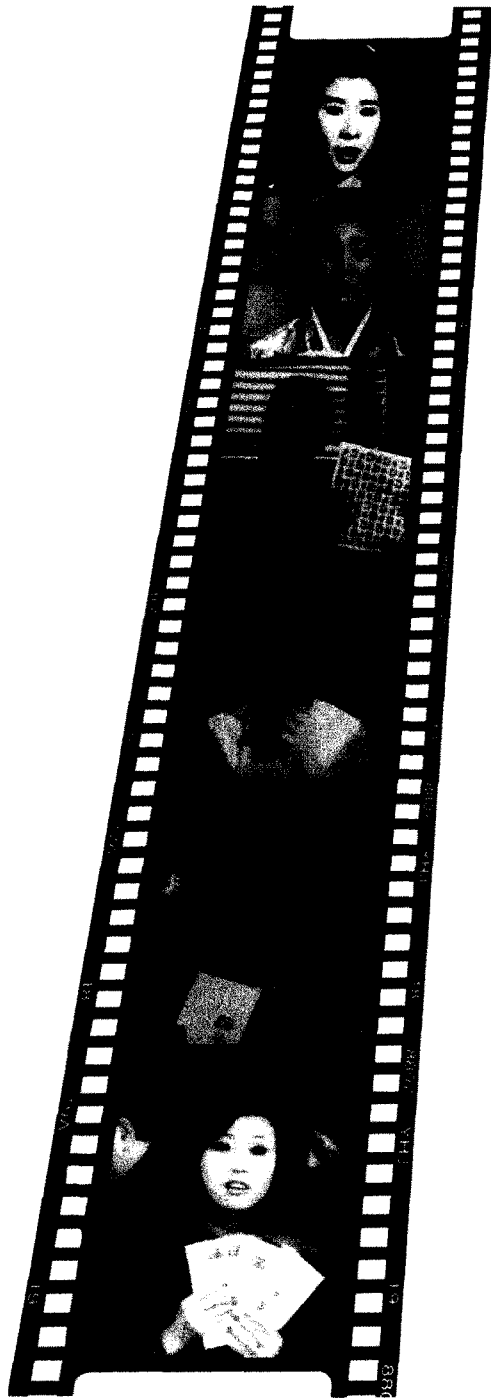
한 가정을 방문한 엄앵란 씨가 결핵검사, 엑스레이 촬영, 어린이예방접종 등에 대해 설명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도록 유도하는 이 광고는 그녀의 등장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을 터. 당시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 결혼 이후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한동안 연예계를 떠나 있었지만 중년의 나이에 솔직하고 거침 없는 입담으로 연예계에 복귀하여 연기 이외의 다방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녀가 반가운 이유다. (관련영상 : 대한뉴스_KC 제 343호)

1967년 11월에 제작된 캠페인 광고에는 한국의 엘리자베스테일러로 불리는 영화배우 김지미가 출현한다. 이 캠페인에서 김지미 씨는 특유의 똑부러지는 말투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소개하고 있다. 동양적인 미모와 강인한 성격을 바탕으로 한국영화의 전성기인 1960~70년대를 풍미한 그녀는 데뷔 40여년이 지난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등의 직책을 맡아 활동하는 등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영상 : 대한뉴스_KC 제 649호)

1970~80년대 '만인의 연인'은 단연 배우 김자옥이다. 1970년 MBC 공채 2기로 데뷔한 그녀는 이후 청순가련, 감쪽발랄하며 이지적인 면모까지 두루 갖춘 다양한 이미지로 어필했다. 많은 여배우들이 전성기를 누리던 후 그 인기를 지속하지 못하고 브라운관에서 사라지는 공식을 깨고 현재까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중 하나가 그다. 1971년에 제작된 캠페인 광고에 등장한 배우 김자옥은 특유의 눈웃음과 호소력 있는 어조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해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돕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관련영상 : 대한뉴스 제 858호)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하늘이시여'는 수많은 연기자들 중 배우 한

혜숙을 단연 돋보이게 했다. 데뷔 이래 이지적이고 차가운 듯한 외모에 걸맞게 별다른 스캔들 하나 없이 연예활동을 이어온 배우 한혜숙은 1970년 MBC 공채 2기 배우로 데뷔, 절정의 인기를 누렸고 1973년 12월 대한결핵협회의 캠페인광고를 찍으며 협회와 인연을 맺었다. 한혜숙이 우체국에서 크리스마스 쌀을 구입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광고에는 고이찬세 대한결핵협회 전회장이 박정희 대통령께 크리스마스 쌀을 증정하는 모습과 대한결핵협회의 연구활동 등이 담겨 있다. (관련영상 : 대한뉴스 제 963호) 영상매체가 대중화되지 않은 당시에는 TV가 아닌 극장을 찾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영화 사이사이에 끼워 결핵을 퇴치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광고를 내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퇴치와 쌀 모금은 대중의 호응을 얻은 반면 다매체 시대인 오늘날 오히려 결핵에 대한 인식도는 훨씬 낮아진 실정이다. 세월이 흘러 2008년 우리나라는 당시와는 확연히 다른 보건환경에 직면해 있다. 결핵환자의 절대적 수치가 많아 그 크기를 줄이는 것이 당시의 보건문제의 화두였다면, 오늘날에는 진화된 결핵균과 싸우는 것, 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결핵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세계결핵의 날을 맞아 이 핵심사안에 다가서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야 할 것인지 더욱 고민해야 할 것 같다. †



※ 관련 영상은 국정브리핑 e-영상역사관 (<http://ehistory.korea.kr>)에서 볼 수 있습니다.